

## 주요 내용

### 주요 업종의 최근 수출 동향과 향후 전망

#### 개관

- (동향) 1/4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하는 부진 양상을 보였으며, 4월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함. 한편 98년 1/4분기의 금 및 유휴설비 수출을 제외하면, 전년 동기 대비 3.3%의 소폭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됨
- (특징) 중화학공업 제품 수출은 미소하나마 증가한 반면 경공업 제품 수출은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98년에 이어 對선진국 수출이 호조인 반면 신흥 시장의 경제 위기 여파로 對개도국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함

#### 주요 업종별 수출 전망

- (자동차) 선진국 시장 호황, 對유럽 경차 수출 확대, 신모델 수출 호조, 국내 업계 구조조정 마무리 등에 힘입어 소폭이나마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5.8%)
- (반도체) D램 가격 회복과 국내 업체의 생산량 증대에 힘입어 98년 말부터 10% 이상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최근 D램 가격의 재하락으로 하반기에는 증가세가 둔화되겠으나 내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상승세가 예상됨
- (정보통신) 무선통신기기와 컴퓨터를 중심으로 큰 폭의 수출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최근에는 일본, 중국 등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과 EU 시장에 대한 수출 집중 현상이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나타냄
- (일반기계) 1/4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미세한 증가율을 기록함. 주력 시장인 아시아 경제의 회복 속도가 비교적 완만하고, 원/달러 환율 하락 추세로 對선진국 수출 확대도 곤란해 본격적인 수출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움
- (철강) 내수 회복에 따른 수출 여력 감소와 수입 규제 강화로 98년 12월 이후 큰 폭의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수출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수출 물량도 크게 감소하고 있음.
- (석유화학) 내수 회복 및 동남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물량 증가율의 둔화, 단가 하락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 감소,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임

주요 업종의 최근 수출 동향과 향후 전망

산업연구실

개관

- (동향) 1/4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하는 부진 양상을 보임<sup>1)</sup>
  - (원인) 대외적으로는 아시아, 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경제 침체, 원/달러 환율 하락세,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확산, 대내적으로는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부분적 생산 차질 등이 주요인임
  - 98년 1/4분기중 금 모집 수출, 유희설비 수출 등 특수 요인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올해 1/4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비록 98년 1/4분기 중의 금모집 수출, 유희설비 수출 등 특수 요인을 제외하면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수출경쟁력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함

< 최근 수출 동향 >

(단위: 백만 달러, %)

	1998	98. 1/4	99. 1/4
총수출	132,313(-2.8)	32,231( 8.4)	30,342(-5.9)
(특수요인 제외)		29,381(-1.2)	30,341( 3.3)

주 : 1) 아래 줄은 98년 1/4분기중 금 및 유희설비 수출 등 특수요인을 제외할 경우의 수치임

2) 괄호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산업자원부

- 특징
  - (업종별) 반도체, 정보통신, 반도체 등이 호조를 보인 반면, 석유화학, 철강 등 전통적 소재산업의 수출은 크게 감소함
  - 석유화학은 주력시장인 동남아의 경기 침체와 단가 하락, 철강은 내수 회복에 따

1) 최근 발표된 4월 수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세 기록

른 수출 여력 감소와 미국 등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가 주된 부진 요인임

< 주요 업종별 1/4분기 수출 동향 >

(단위: 억 달러, %)

업종	자동차	반도체	정보통신	석유화학	철강	일반기계
금액(억 달러)	19.3	46.3	25.2	15.2	15.5	11.9
증가율	0.9%	13.4%	19.1%	-11.8%	-23.1%	2.3%

자료: 산업자원부

- (산업별) 중화학공업 제품 수출은 미소하나마 증가한 반면 경공업 제품 수출은 감소함
  -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은 중화학공업이 0.2%, 경공업이 -3.3%를 기록함
- (지역별) 98년에 이어 對선진국 수출이 호조인 반면, 신흥 시장의 경제 위기 여파로 對개도국 수출은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함
  - 對美, 대EU, 對日 수출 증가율은 각각 11.9%, 1.1%, 6.2%임
  - 반면 對개도국 수출은 -7.0%로 98년의 -9.9%에 이어 감소세 지속
  - 90년대 이후 對선진국 수출이 감소하고 對개도국 수출이 증가하던 추세가 1998년을 계기로 반전된 것은 일견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신흥시장 지역 경제위기에 따라 인위적으로 수출선이 전환된 것으로 본격적인 수출 경쟁력 향상을 의미하지는 않음

주요 업종별 분석

자동차

- (동향) 소폭이나마 꾸준한 증가세 유지
  - 금년 1/4분기의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8% 늘어난 25만대 수준을 기록해 전년에 이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4월까지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해 증가폭이 다소 늘어나고 있음

**< 자동차 수출 동향 >**

(단위: 대, %)

		1996	1997	1998	1999. 1/4
전 체		1,210,157	1,316,891	1,362,164	251,152(5.8)
차종별	승용차	1,056,400	1,155,893	1,228,144	228,588(14.0)
	상용차	153,757	160,998	134,020	22,564(-38.9)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 **특징**

- **(대형차 수출 본격화)** 그간 수출 실적이 거의 없었던 대형차의 수출이 현대의 수출전략형 신모델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화됨
- **(對美 수출 호조)** 신규 투입 신모델의 품질 향상으로 인한 이미지 개선, 보증기간 연장 등 적극적 마케팅 전개, RV 수출 호조, 대우의 신규 진출 등으로 미국 시장 수출이 크게 늘고 있음
- **(수출 단가 회복세)** 작년 원화가치 급락, 低단가 경차 수출의 상대적 증대 등으로 크게 낮아졌던 자동차 수출 단가가 원화가치 안정, 중대형차 수출 비중의 상대적 증가 등에 따라 점차 회복세를 보임
  - 금년 1/4분기의 수출 단가는 6,474달러로 98년의 6,355달러에 비해 다소 상승
  - 그러나 98년 경차 수출이 2/4분기 이후에 집중되어, 전년 동기 대비 경차 수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9% 소폭 증가에 그침

● **(전망) 전년 대비 약 7%의 증가세 유지**

- **(증가세 지속)** 품질 개선 및 구조조정 완료에 따른 기업 이미지 개선, 소형차 및 RV 신모델 출시, 내수 침체에 대응한 국내 업체들의 적극적인 수출 확대 등을 배경으로 꾸준한 호조를 보여,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약 7%의 증가세 유지 전망
- **(불안 요인)** 그러나 선진국 시장 위축 및 통상마찰 심화 가능성, 각국의 환경 규제 강화, 엔화 환율의 불안정성, 전년 대비 경차 수출 위축 등 불안 요인도 상존

**반도체**

- **(동향)** 한동안 부진하던 반도체 수출이 회복되어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음

- 1/4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4월에도 11.6%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증가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음
- 반도체 수출은 작년 9월까지 감소세였으나, 11월 이후 회복세로 돌아서 지금까지 10%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함

< 반도체 수출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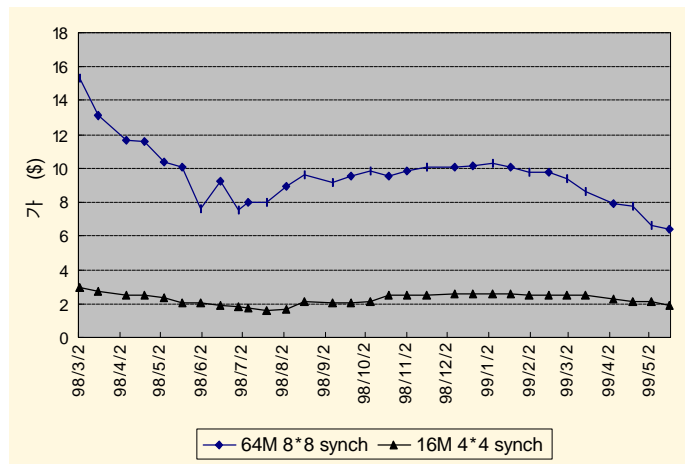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1998								1999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수출액	1,441	1,165	1,244	1,419	1,425	1,504	1,636	1,783	1,562	1,464	1,601	1,463
증감율	-3.4	-27.8	-17.6	-11.9	-5.5	-9.6	6.1	20.7	20.6	9.9	10.1	11.6

출처: 무역협회, 관세청

- (수출 호조 요인) D램 가격의 회복과 우리 업체들의 생산량 증대
  -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D램 가격이 작년 7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섬
  - 작년 6월말 7.5달러였던 64M D램 현물가격이 올해 초에는 10.3달러까지 회복됨

< D램 대표제품의 현물가격 동향(북미시장기준) >



출처: Amerian IC Exchange

- 가격 회복으로 국내 업체들은 그동안 억제해오던 증산을 본격 추진함. 특히 1/4분기에 64M 라인의 가공정밀도를 향상시켜 생산능력이 40~60% 정도 증대됨
- (전망) D램 가격의 재하락으로 하반기에는 증가세가 둔화되겠으나 내년 이후

---

### 에는 본격적인 상승세가 예상된다

- 올해 3월 이후 D램 가격이 다시 하락하여 5월 중순 현재 64M D램 현물가격이 6.4달러까지 떨어짐. 현물시장가격이 고정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반도체 수출액은 6월경부터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임
- 현재의 가격하락은 미 마이크론사와 대만업체들의 64M D램 증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초래된 것으로 하반기까지는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올 연말까지 생산능력 확장이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는 본격적인 경기 상승기가 도래할 것임. 또한 연말부터 128M D램이나 램버스 D램 시장이 본격 형성되기 시작하면 국내 업체들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임

## 정보통신

### ● 동향 및 특징

#### - 큰 폭의 증가세로 호조 지속

- 반도체를 제외한 정보통신 부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1% 증가하였고,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2억 5,435만 달러로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26.3%를 차지함

#### - 무선통신기기와 컴퓨터가 수출 주도

-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무선통신기기와 컴퓨터인데, 최근에는 통신 단말기와 위성방송 수신기 등 무선통신기기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주요 품목별로는 무선전화기(전년 동기 대비 165.9%), 위성방송수신기 및 무선통신기 등 수신기(-43.9%), 컴퓨터 본체(294.9%), 컴퓨터 주변기기(-20.8%), 소프트웨어(31.2%) 등임

#### - 지역별로는 미국과 EU 시장에 수출이 집중되고 있으나, 최근 일본, 중국 등에 대한 수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과 EU 지역이 정보통신 부문 전체 수출의 약 63.2%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무선통신기기는 중국, 홍콩, 브라질 등을 중심으로, 컴퓨터의 경우 일본을 중심으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정보통신산업의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

(단위 : 천 달러, %)

	유선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전자응용기기	합 계
1998년	641,695	2,688,721	5,074,308	429,363	8,834,087
1999년 1/4분기	168,308 (8.0)	980,997 (86.8)	1,287,440 (-3.2)	79,078 (-23.4)	2,515,823 (19.1)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주 : 유선통신기기는 유선전화기, 교환기, 반송통신기기, 전신기기, 유선통신기기 부품 등; 무선통신기기는 무선전화기, 송신기 및 송·수신기, TV 카메라 및 수상기, 수신기, 무선통신기기 부품 등; 컴퓨터에는 컴퓨터 본체, 컴퓨터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등; 전자응용기기는 교통신호기기, 정보신호기기, 사무자동화기기, 자동판매기, 의료기기 등 포함

● **전망**

- **세계적인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지속적인 수출 확대 가능**
  - 주요 수출 지역이 미국과 EU 등에 집중되어 있지만, 중국, 브라질, 홍콩 등 정보통신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일본에 대한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수출시장 다변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함
  -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성장 기반과 환경이 확고하게 구축된다면, 수출의 주력 산업으로서의 정보통신산업의 전망은 매우 밝음
- **그러나 경쟁이 격화되면서 단가 하락으로 인한 수출액 감소 가능성도 존재함**
  - 관세청이 발표한 4월 수출 실적을 보면, 정보통신기기의 경우 수출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60.9% 증가하였으나, 단가는 1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일반기계**

● (동향) 미세한 증가세

- 99년 1/4분기 수출은 전년도 동기 대비 2.3% 미세한 증가율을 기록함
  - -0.3%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던 98년도와 비교해서 미소한 반전임

< 일반기계 수출 동향 >

(단위: 백만 달러, %)

	전체	섬유피혁 가공기계	화학 기계	운반하 역기계	공작 기계	냉동공 조기계	가열난 방기구	원동기	펌프	건설광 산기계	기타
1998	5,277 (-0.3)	462 (-35.0)	234 (44.5)	282 (6.1)	566 (43.3)	197 (25.0)	192 (66.0)	560 (41.3)	616 (-10.5)	1,010 (10.5)	1,158 (-20.6)
1999. 1~3	1,193 (2.3)	91 (-27.6)	48 (32.1)	30 (-57.7)	128 (15.8)	59 (44.0)	31 (9.8)	132 (13.0)	129 (-23.6)	244 (13.6)	290 (18.9)

자료: KOTIS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수출 구조의 특징

- 90년대 들어 低價 기종의 對아시아 수출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급증하였으나, 97년 이후는 對선진국, 특히 대미 수출이 대폭 신장됨
  - 아시아 경제 위기를 계기로 아시아 지역 수출이 급감한 대신, 원/달러 환율 상승을 계기로 대미 수출이 급증해 對아시아 수출 부진을 보전함
- 결국 우리 나라 일반 기계 수출은 주력 시장인 아시아 지역의 시장 기조와 보조 시장인 구미에서의 가격경쟁력(환율)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임

< 일반기계의 지역별 수출 비중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

		1990	1993	1995	1996	1997	1998
수출액		1,775	3,055	5,570	5,407	5,292	5,277
비중	아시아	38.0	44.7	49.2	51.9	46.1	37.1
	유럽	13.8	16.6	17.6	15.4	19.6	20.2
	북미	34.0	20.2	17.2	16.3	15.9	22.7



---

## ●전망

- 따라서 올해 일반기계 수출은 아시아 경제의 회복 속도와 원/달러 환율 추이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음
  - 아시아의 경제 회복이 지연된 채 원/달러 환율 하락이 지속될 경우 하반기에는 소폭이나마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음
- 아시아의 경제 회복 속도가 비교적 완만할 것인 반면 원/달러 환율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99년 일반기계 수출은 전년 동기 2% 내외의 소폭 증가에 그칠 예상임

## 철강

### ● (동향) 큰 폭의 감소세 지속

- 98년 12월 이후 4개월 연속 큰 폭의 수출 감소세가 지속됨
  - 1/4분기 철강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1%로 대폭 감소
  - 특히 수출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3월 전월 대비 -7.5%)하는 가운데, 수출 물량도 크게 감소(3월 -13.6%)함

### ● (수출 부진 원인) 전반적으로 내수 회복에 따른 수출 여력 축소와 수입규제 강화가 부진의 주요인

- (형강)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악화, 미국의 수입 규제 강화 등
- (선재·봉강) 중국의 산업 보호정책(수입 허가증 발급 불허) 등으로 對中 수출 부진
- (열연 강판) 국내 냉연 공'장의 수요 및 컨테이너용 열연강판의 내수 급증으로 수출 여력 축소
- (냉연 강판) 자동차 및 家電의 경기 회복세로 수출 여력 감소, 주력 시장인 중국의 수입 쿼터 축소와 동남아 지역의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한 수출 시장 여건 악화, 미국과 EU 중심의 수입 규제 움직임 등

**< 철강제품 수출 동향 >**

(단위: 백만 달러, %)

품목별	1998	1999		
		1~2월 누계	3월	1/4분기
총수출	7,973(17.2)	960(-17.2)	587(-31.1)	1547(-23.1)
형강	402(58.3)	52(-8.2)	37(2.1)	89(-5.8)
선재·봉강	621(112.7)	51(-49.4)	34(-65.6)	85(-57.5)
열연강판	1,408(3.5)	157(-37.9)	99(-36.4)	256(-37.3)
냉연강판	1,731(27.9)	202(-21.6)	123(-32.9)	325(-26.3)

자료: KOTIS

주: (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향후 수출 여건 전망**

- 전반적으로 수출 저해 요인들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수출 부진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 한국, 태국 등 일부 지역의 자동차 생산 회복 등으로 냉연 가공을 위한 열연강판 수요가 증가되어 이 품목의 국제 가격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도 있음
- 對선진국 수출 여건이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임
  -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통상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 향후 철강 제품의 수출 여건 전망 >**

긍정적 여건	부정적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연강판과 같은 판재류의 수요 증가에 의해 국제 가격 상승 조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화 강세</li> <li>- 철강재의 내수 증가</li> <li>- 통상 마찰 심화 지속</li> <li>- 아시아 지역 등 세계 수요 침체</li> </ul>

**석유화학**

- (동향) 수출 부진 현상 지속

- 동남아 지역의 경기 침체, 수출 단가 하락 등으로 인해 1/4분기에 수출액은 11.8% 감소하는 부진 현상을 보임
- 4월 들어서도 전년 동기 대비 23.7%나 감소하여 부진 현상은 지속됨

● 수출 부진의 원인

- 올해 들어 내수용 출하가 호조세로 전환됨에 따라 수출 물량의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수출 주력 시장인 중국의 수요가 침체함
- 동남아 지역의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 물량 증가로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 수출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은 감소하고 있음

< 석유화학 수출 동향 >

(단위: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년 1/4분기
수출액(증가율)	6,819(25.2)	6,642(-2.6)	1,524(-11.8)
수출량(증가율)	4,887(36.5)	6,675(36.6)	-

자료: 수출액은 산업자원부, 수출량은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 전망

- 주력 수출 시장인 동남아 지역의 경기 회복 여부에 큰 영향을 받을 것임
  - 아시아 지역 수요 부진에 따른 공급 과잉 및 가격 약세 지속으로 수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올해 하반기 이후에 수출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채산성이 호전될 것 같지는 않음
  - 특히 산유국의 감산 조치에 따라 석유화학 기초원료인 나프타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제품 가격은 약세여서 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예상됨